

교회소식 |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오중보기도 - 매일 정오 12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1. 성찬 예배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2. 홀리원 나잇 축제

10/31(목) 저녁 6:30-9:00 / 유스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김상훈목사)

3. 아담스 목장을 위한 양육훈련 신청

남성들을 위한 양육 훈련이 11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 담임목사 / 교재 : 풍성한 삶의 첫 걸음 / 날짜와 시간은 추후 조정가능.

▶ 교우소식

■ 다과 : 김성욱성도(유지인집사) 가정 / 다음 주 : 친교부

■ 출타 : 김정미집사 (한국 방문)

▶ 10-11월 목회일정

■ 10/31(목) 홀리원 나잇 6:30-9:00pm / 유스 예배실

■ 11/5(화) 청년 여호수아 목장 양육 훈련 시작(교재 : 풍성한 삶의 첫걸음)

■ 11/9(토) 11월 월삭 새벽기도회 6:00am / 본당

■ 11/10(주일) 릴루엣 원주민 아동을 위한 성탄선물 도네이션 시작

■ 11/24(주일) 성찬예배

■ 예배위원안내

날 짜	부 기도	2부	헌금위원	안 내
10월 20일	목회기도	송상헌	김정미	10월 김경이
10월 27일	김만수	도유경	김하연	

■ 공동기도제목 12시 정오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오직 성경(Sda Scriptura)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성도를 위해	도유경집사(김하연, 하은) 가정의 건강과 믿음을 지키소서

섬기는 사람들	협력 선교지 및 선교사
담임목사 정 병 완	캐나다 릴루엣 원주민(이준호 선교사)
부목사(유스) 김 상 훈	북 한 First Steps(수잔 리치 Susan Ritchie)
전도사(키즈) 장 호 선	에디오피아 Petros Network
전도사(천양) 박 청 아	

선한 이웃 선교로 통로가 되는 나무십자가 공동체



2019년 신앙주제

내 백성을 위로 하라!

Comfort my people.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제 7권 43호

주 일 성 찬 예 배

2019. 10. 27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2시
예 배 의 부 름	인도자	
기 원	인도자	
* 찬 송	595장 (통 34)	
기 도	목회기도	송상헌집사
교 회 소 식	인도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찬	인도자	
공 동 기 도	다같이	
특별찬양및 봉헌	송상헌(김하연)집사 가정(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봉 헌 기 도	인도자	
다 음 세 대 축복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20:17-24(신약 223)	
설 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웁니다.	
* 파 송 찬 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축 도	담임목사	
※표는 일어섭니다.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오전 6시

“시편 강해”

인도: 담당 교역자

장소: 교회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열왕기상 강해”

인도: 담당 교역자

장소: 실만한 물가

교회학교예배

주일 오후 2시

Kids(드림, 비전목장)

Youth(다니엘목장)

인도: 담당 교역자



Tel. 778.871.7740 / www.vanwkc.com

교회 : 1460 LANSLOWNE DR. COQ

실만한 물가 : 2288 ELGIN AVE PQ. COR

사도행전 20:17-24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웁니다.)

1. 살다보면 계획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며 교회를 든든히 하고, 마게도냐 지역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든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서의 3개월 동안의 사역을 끝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 빠른 뱃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육로를 이용해 얼마 전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처음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3. 드디어 먼 길을 돌아 무교절이 끝났을 때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오순절까지는 채 50일도 남지 않았습니. 사도 바울은 서둘러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때 이틀 만에 왔던 뱃길을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주일 예배를 인도 할 때 예배 도중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4. 계획이 어긋나 빌립보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곳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일 고린도에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더라면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 예배를 인도하다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바울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확고한 부활 신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6.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은 계속되어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다시 만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7. 1)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목양했던 자신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최선을 다해 목양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2) 성령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멈춤 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3) 아울러 교회의 장로들은 스스로 깨어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8.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교회가 되라 당부합니다.

♣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

월요일 -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용 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앙을 빌미로 한 차별을 중단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소서.

화요일 - 시리아의 쿠르드족 자치 지역은 타종교에 관대하여 최근 이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과 개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고 복음 전파 사역이 지속되게 하소서.

수요일 - 과거와 달리 아프리카와 중동에 평화로운 정권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선거를 통해 세워진 정권들이 국민의 권리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소서.

목요일 - 여러 국제 선교 단체에서 리더를 맡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금요일 - 북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콩 두유와 산모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하는 퍼스트 스텝(Frist Steps)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굳게 닫힌 복음의 문이 속히 열리게 하소서.

토요일 - 릴루엣 지역의 원주민 밴드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보내는 도네이션 행사가 진행중입니다. 밴쿠버 지역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풍성한 선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주민 밴드에 전달되게 하소서.

- 매일성경에서 인용 -